



디지털 농업 본격… 스마트농업 확산·플랫폼 고도화

도, 농촌진흥사업 315억 투입… 실용·혁신 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저탄소 농업 적응형 품종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올해 총 315억 원을 투입해 농촌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 생태계 고도화와 스마트농업 실용 기술의 현장 확산, 저탄소 농업기술 및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와 농작물 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농업기술원은 농업 데이터 확충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제주DA'를 고

도화한다.

제주DA 플랫폼 데이터는 농업·농촌 전수조사 자료 등 기존 34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월동작물에 대한 생산·가격 예측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석 기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저비용 저농형 스마트팜 기술 확산과 농작업 기계화 확대를 통해 농업 현장의 노동력 절감에 주력한다.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귤과 키위 생육관리 모델을 고도화하고, 저비용 스마트팜 '제빛나' 시스템을 12개소로 확대·보급하며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8억원을 투입해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계 수확이 가능한 참깨·땅콩·녹두 품종과 노동력 절감 장비 3종 28대를 보급하고, 마늘과 양파 등 월동채소 농작업 기계화 모델을 50ha까지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과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도 강화한다.

서부지역 저하수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해 비료 사용량 20% 저감을 목표로 표준시비 시범사업을 400개소에서 운영하며 농업미생물 450t 을 공급하고 농가가 직접 배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비용 미생물 배양기 보급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필름형 태양광 시설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RE100 농산물을 감귤 등 4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만감류·브로콜리·마늘·아열대 과수 등 기후변화 대응 품종을 육성·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 및 교육 확대, 온열 예방 요원 양성 등 농업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농작물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감귤 병해증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재해 경감 기술 보급도 병행 추진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사)제주감귤연합회·농협제주본부는 지난 10일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 농정간담회를 열고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만다린 수입 확대… “수입 관리·검역 체계 보완을”

감귤연합회·제주농협, 문대림 의원과 농정간담

“품질기준 지키면 제주산 만감류 경쟁력 충분”

만다린 수입 확대에 대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관리·검역 체계 점검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 제

주본부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축협 플라자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감귤산업 농정간담회를 열었다.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농업 여건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만다린 수입 확대 국면에서 제주 감귤이 직면할 수 있는 가격·수급 불안 가능성과 농가 경영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만다린이 수입되더라도 조기출하를 자제하고 품질기준을 충실히 지킨 감귤이 출하된다면 현재 제주산 만

감류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 여건과 수입 관리·검역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체계 점검과 대응력 강화 ▷고품질 생산·유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병해증 유입과 저품질 수입 물량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검역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만감류 군납 확대와 매취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일부 적용됐던 제주산 만감류가 올해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재포함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수급 여건이 훈들릴 경우 그 영향도 크다”면서 “농가가 품질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제도와 검역 기준 보완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ojoh@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개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 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맷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원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증사업 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국일보'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의(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종을 불법 제취해서 자가묘목, 고점, 접종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국일보'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흑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밟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3개 업체

한라종묘

증사업 등록번호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010-3696-2057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월 12-18일)

“다양한 고품질 제품 생산·공급”



▶ 신진기업=오는 15일 창립 55주년을 맞는 신진기업(대표 정병식·사진)은 시멘트 가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벽돌과 인도블록, 경계석, 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면서 기업 신뢰도와 시공력을 인정받아 동종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정병식 대표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품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743-6734.

“표선의 금융 등대 역할 최선”



▶ 제주은행 표선지점=오는 18일 개점 44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표선지점(지점장 이지희·사진)은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 호흡해 온 표선면 내 유일한 제1금융기관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금융 벼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지희 지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세밀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표선면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787-0606.

새해 제주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1월 첫째 주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각각 -0.03%

새해에도 제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1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대비 각각 -0.03%로 집계됐다.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최근 -0.03~-0.04% 수준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을 보면 월별 기준으로 제주지역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022년 8월부터 전세가격은 같은 해 9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새해 첫 주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고, 수도권 (0.11%)과 지방 (0.02%)도 올라 제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충남(-0.03%), 대전(-0.03%), 대구(-0.01%) 등 일부에 그쳤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이다. 새해 첫 주 전국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고, 수도권 (0.11%)과 지방 (0.05%)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하락했다.

제주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시 (-0.03%)와 서귀포시 (-0.04%) 모두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이 하락했으며, 이는 도지역 평균(매매 0.01%, 전세 0.04%)을 밑도는 수준이다.

로또복권

<제1206회>

당첨번호	1, 3, 17, 26, 27, 42
2 등 보너스숫자	23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감귤묘목

▲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 천혜향 2년생 3년생

▲ 궁 천 3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증사업 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